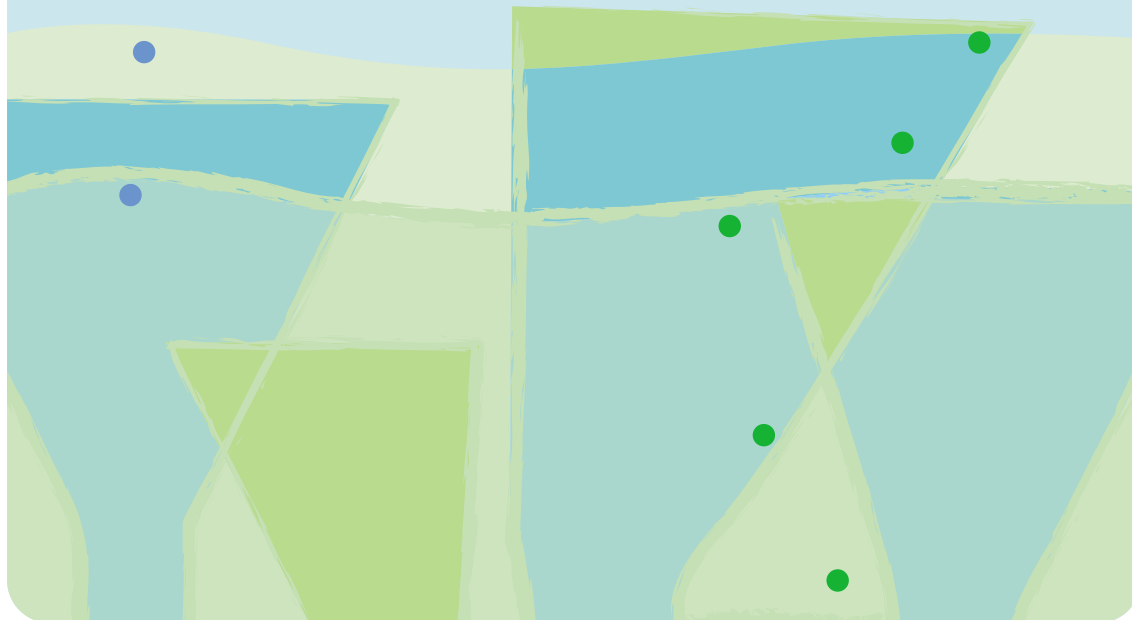


|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 | 영역3 상호작용 | 21인 미만 |





인사말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일, 안정적인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일,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모든 보육인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리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통해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는 많은 보육인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공식적인 조력기관으로서 중앙보육정보센터와 16개 시·도 보육정보센터, 13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최선을 다해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를 지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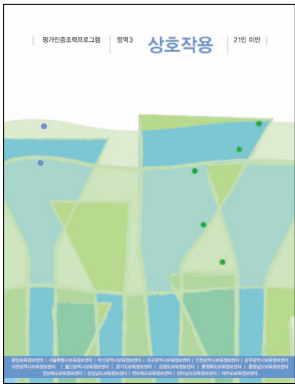
이제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보육정보센터가 협력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은 전국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의 성공적인 인증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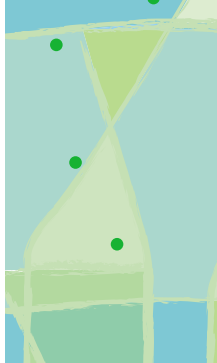
전국보육정보센터 연구진 일동



표지이야기

보육은 밝고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과 미래를 향한 날개짓이다.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 이루어나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다. 그 지침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표지에 담았다. 총 4권으로 구성된 21인 미만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의 메인 컨셉은 ‘나무’이다. 쑥쑥 활기차게 자라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나무’로 형상화하였다.

영역3. 「상호작용」에서는 ‘바람’과 ‘물’을 상징이미지로 정하였다. 나무는 햇빛과 바람,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의 알맞은 조화로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보육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협력하여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보육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CONTENTS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

영역3. 상호작용 21인 미만

이 책의 활용 방법	6
------------------	---

상호작용의 이해

1. 상호작용의 기초	10
2. 상호작용의 원리	12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 이해

가. 일상적 양육

소 3-1. 식사(수유)와 간식 시간	28
소 3-2. 영유아의 낮잠 시간	32
소 3-3.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사용	37
소 3-4. 기본적인 건강 습관 지도	42

나. 교사의 상호작용

소 3-5.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	48
소 3-6.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교사 반응	53
소 3-7.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등한 대우	58
소 3-8.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63
소 3-9.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격려	68
소 3-10.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73
소 3-11.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78

부록. 자체점검을 통한 상호작용 개선 방안

1. 자기진단의 실행 및 적용절차	85
2. 상호작용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88

조력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자문위원	96
도움을 주신 어린이집	98
중앙 및 지역보육정보센터 연락처	100

이 책의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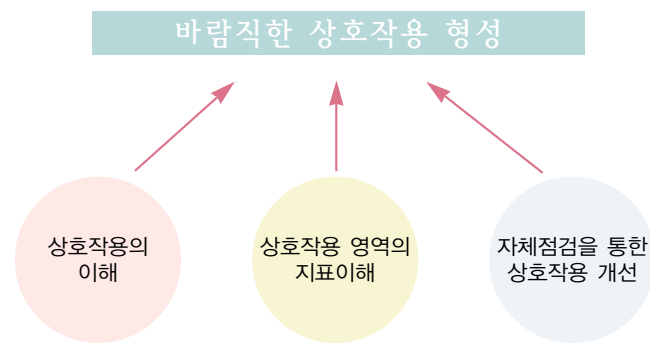
상호작용 영역 조력 프로그램의 구성

2005년 처음 시행된 평가인증에 참여했었던 보육시설의 교사들에 따르면 짧은 시간동안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상호작용' 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상호작용' 영역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개선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 자신의 자발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 항목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크게 상호작용의 이해,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 이해, 자체점검을 통한 상호작용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작용 영역 조력 프로그램의 활용 목표

상호작용의 이해는 교사들이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 이해**는 상호작용 지표 항목 마다 구체적 활동을 제시하여 교사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며,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문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체 점검을 통한 상호작용 개선** 부분에서는 교사가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교사 자신의 현재의 상호작용 각 항목에 관한 수준을 알고 개선방안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지침서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영유아들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세부 구성은 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용어**, **점검해 보세요**, **Q & A**, **참고해 보세요**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영아반' 과 '유아반' 의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각기 서로 다른 태도로 영유아와 상호작용 하여야 하므로 교사의 상호작용을 '영아반' 과 '유아반' 으로 나누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중심용어

각 지표의 이해를 위하여 지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핵심 단어를 '중심용어'로 선정하고, 이 중심 용어를 통하여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을 점검해 보도록 하였다.



점검해 보세요

각 지표에 따라 표로 제시된 '점검해 보세요'는 각 각의 문항에 대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상호작용 행동을 진단하여 O/X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을 이용한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각 지표 별로 상호작용의 개선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교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Q&A

'Q&A'에서는 각 지표마다 교사가 실제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싣고,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예'와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세요'에서는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본문에서 영유아의 연령은 만 연령이 기준이다. 연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월수	구분	개월수
0세	0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세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1세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4세	48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2세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5세	60개월 이상 ~ 72개월 미만

영역3. 상호작용

가. 일상적 양육

- 소 3-1. 식사(수유)와 간식시간
- 소 3-2. 영유아의 낮잠시간
- 소 3-3.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사용
- 소 3-4. 기본적인 건강 습관 지도

나. 교사의 상호작용

- 소 3-5.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
- 소 3-6.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교사 반응
- 소 3-7.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등한 대우
- 소 3-8.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 소 3-9.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소 3-10.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 소 3-11.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상호작용의 이해

- 1. 상호작용의 기초
- 2. 상호작용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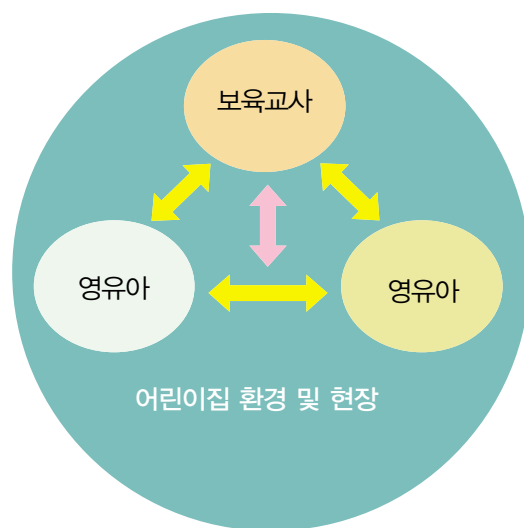
상호작용의 이해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영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상호작용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호작용의 이해' 부분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 상호작용의 기초, 상호작용의 원리, 하루 일과 운영에 따른 상호작용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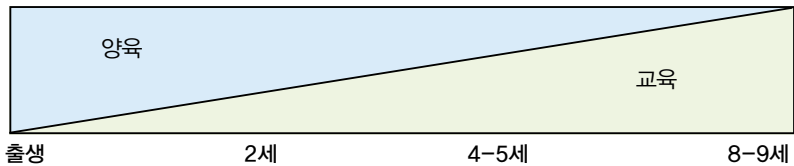
1. 상호작용의 기초

1) 상호작용의 정의

상호작용은 인간들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그리고 현상을 포함한 그들 간의 서로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한다. 보육시설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상호작용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와 행위적, 언어적, 비언어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때때로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기도 하고, 영유아와 개별적·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발달과 학습을 돕기 위해 양육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린 영아의 교사에게는 양육적 역할이 강조되며,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사에게 교육적 역할이 커지게 된다.



2) 상호작용의 중요성

보육시설의 교사는 영유아와의 바람직한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등 모든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영유아가 교사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갖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래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후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애착형성과정에 있는 어린 영아의 경우 안정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서적 배려가 강조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보육시설에서의 상호작용을 교사가 영유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관계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상호작용 말 그대로 상호적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은 교사에게도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상호작용에서 영유아 관찰의 중요성

영유아 관찰은 교사가 영유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먼저 영유아를 이해하고자 영유아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즉, 영유아의 연령, 인지수준, 사회적 경험여부, 영유아의 기질, 문제행동의 정도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영유아 개개인을 이해하는 데는 영유아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 개인의 발달정도를 알 수 있다.
- 자연적 상황에서 영유아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영유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해 볼 수 있다.
-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
-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 교사의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영유아를 평가할 수 있다.

영아관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들의 경우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만 영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아 관찰은 좋은 상호작용의 필수 조건이 된다.

■ 영아 기질 관찰

영아 기질은 영아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교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영아를 관찰함으로써 영아 개개인의 기질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아는 기질에 따라 까다로운 영아, 순한 영아, 반응이 느린 영아로 구분되나 많은 영아의 경우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각 개인의 기질을 파악하고 적합한 상호작용 방식을 적용하면 영아의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에 있는 영아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까다로운 영아 :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관성 있게 대한다.
- 순한 영아 : 자칫하면 무관심하기 쉬우므로 요구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 반응이 느린 영아 : 영아를 재촉하지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 영아의 울음 관찰

교사는 영아들의 울음을 싫어하고 웬만한 울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아의 울음은 대부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의 모든 울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 수는 없으나 민감한 교사는 영아 울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통찰력 있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울음에 대한 교사의 민감한 반응은 영아들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기초를 형성하나 교사가 영아의 울음을 무시한다면 영아는 좌절감을 갖거나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된다.

2. 상호작용의 원리

교사는 영유아와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는 영유아의 정서적 지지자이며, 놀이의 안내자, 학습의 촉진자이고, 영유아 간의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이다. 또한 상호작용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영유아 또한 교사에게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는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재충전하는 상호적 관계이다.

1) 상호작용의 기본적 원리

먼저 교사와 영유아 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가지 기본적 원리인 **관심 보이기**, **인정하기**, **애정표현하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호작용 원리 1 '관심 보이기'

- 영유아가 관심 갖고 탐색하는 것에 관심 보이기
- 영유아의 욕구에 관심 보이기
- 영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 보이기
- 영유아의 반응에 관심 보이기

상호작용 원리 2 '인정하기'

- 영유아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 영유아 모두에게 평등하게 인정하기
- 영유아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기

상호작용 원리 3 '애정 표현하기'

- 따뜻한 말로 애정 표현하기
-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하기
- 수용의 눈빛으로 애정 표현하기
-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애정 표현하기
- 영유아가 필요로 할 때 애정 표현하기

2) 보육시설에서의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원리

교사는 보육시설의 하루일과 중에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교사와 영유아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상황 중에서 영유아의 신체적·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놀이상황**, **갈등상황**, **언어적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원리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각 상황에 따른 어린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지침도 함께 소개한다.

가. 놀이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원리

교사의 놀이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



영유아의 놀이 촉진

영유아는 놀이를 통한 다양한 신체적 활동으로 신체를 발달시키며,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놀이는 언어 사용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므로 영유아의 인지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촉진을 위하여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놀이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유능한 교사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언제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할 때
- 영유아가 놀이 중 도움을 필요로 할 때
- 놀이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할 때
- 영유아에게 정서적 위로가 필요할 때

상호작용의 원리

【병행놀이 하기】

이 때 교사는 그 영유아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병행놀이를 함으로써 영유아가 놀이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영유아가 매일 역할영역에서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시늉만을 반복한다면 다음과 같이 병행놀이를 한다.

⇒ 교사(영유아 옆에서 다른 인형에게) : “우리 아기, 엄마랑 같이 시장놀이 할까? 자, 시장바구니 가지고 장보러 가보자. 오늘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살까? 우리 아기에게 물어 보아야지. 아가야 오늘 무엇이 먹고 싶니?”

⇒ 교사(인형에게) : “오늘은 선생님 놀이하자. 선생님이 책 읽어 줄게.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협동놀이 하기】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직접 참여하여 학습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관찰하고, 그 때마다 적절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 교사(영유아들이 야구놀이에 참여하여 포수처럼 행동하며) : “자, 난 포수다. 공 멋지게 던져 봐, 00야!”

⇒ 교사(영유아가 비행기놀이에 참여하여 자신을 비행기라고 하는 영유아에게) : “나는 제트 비행기인데 당신은 무슨 비행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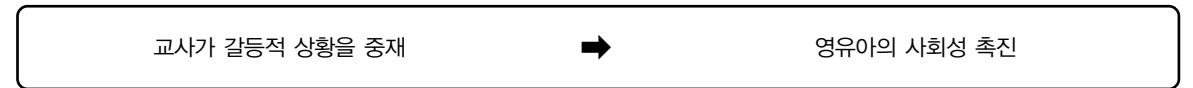
【놀이 가르치기】

영유아가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놀이에 참여하여 보다 더 직접적으로 놀이를 가르칠 수 있다.

영유아가 병원놀이를 하면서 청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교사는 놀이 속에서 청진기 사용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 교사(환자인 영유아에게 청진기를 대면서) :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진찰 한 번 해 볼까요?”

나. 갈등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원리



교사는 영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갈등상황을 중재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 줄 수 있다. 이때 교사가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주기 보다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적절히 중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영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리더십 갖기】

교사는 놀이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영유아가 놀이 중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놀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한다.

⇒ 소꿉놀이에서 “오늘 반찬은 무엇으로 할지 ○○가 정하도록 해볼까?”

【사회적 언어 사용하기】

교사는 영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중재한다. 영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친구들에게 거부 될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보다 설득력 있게 친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을 하도록 격려한다.

⇒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네가 만든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니?”

【협상하기】

교사는 영유아들이 서로 자기주장을 하면서 논쟁할 때 타협하거나 양보하도록 상호작용을 중재한다.

⇒ 한 영유아는 슈퍼맨 놀이를, 다른 아동은 배트맨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놀이를 다 할 수 있을까?”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하기】

교사는 말 보다는 신체적 공격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려는 영유아에게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도록 중재한다.

⇒ “친구를 때리는 것은 좋지 않아. 네가 몹시 화가 난 것 같은데, 친구에게 말로 하는 것이 어떻겠니?”

【상대방 의견 수용하기】

교사는 영유아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영유아에게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자. 어떤 친구가 먼저 이야기할까?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 영유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사가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주목하기】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 “네가 블록을 달라고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너에게 주고 싶을까?”

【친구의 제안을 적절하게 거절하기】

교사는 영유아가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게 하거나 다른 흥미 있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 “네가 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지 친구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면 어떻겠니? 네가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면 친구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놀이집단에 참여하기】

교사는 자신과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영유아에게 효율적으로 놀이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 불평하는 영유아에게 “친구들이 음식점 놀이를 하고 있네. 우리가 음식점의 손님이라고 하고 음식을 주문하면 어떨까?”

갈등적 상황에서의 영아

영아들은 이동 능력이 급격히 발달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놀잇감에 대한 소유, 양육자의 애정을 독점 하려는 마음, 언어 능력의 부족, 욕구 불만, 신체조절 능력의 미숙함 등으로 또래와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마다 영아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울기, 소리 지르기, 빼앗기, 밀기, 때리기, 물기, 화내기, 빠치기 등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 먼저 교사는 놀잇감의 부족, 놀이상대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영아들 간의 갈등상황이 적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아가 다른 영아에게 물기, 때리기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행동의 원인을 찾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부정적 행동을 한 영아에게는 “안돼, 물면 친구가 상처가 나고 아파서 속상하단다.”라는 말을 단호하게 하고, 물린 영아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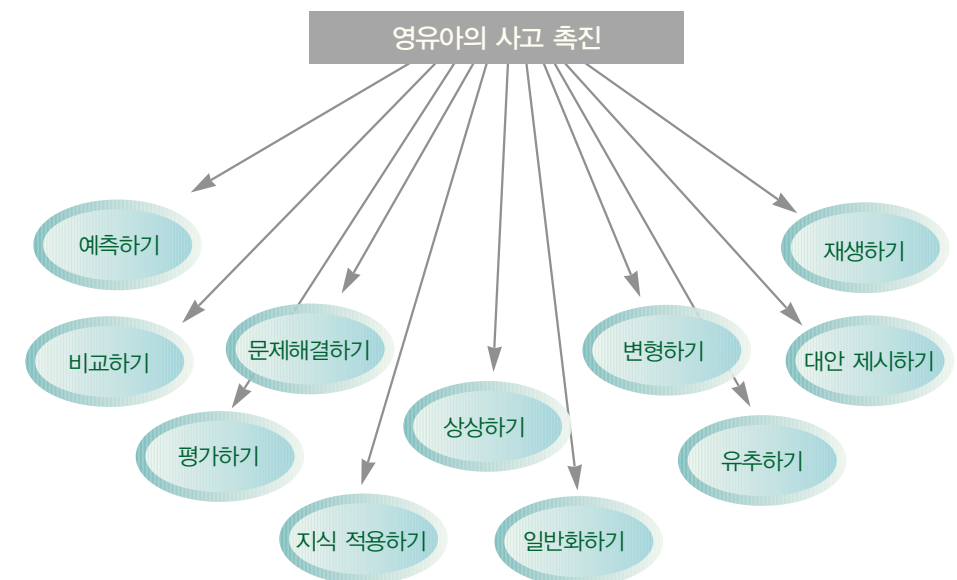
다. 언어적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원리

교사의 확산적 질문



영유아의 사고 촉진

영유아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호기심을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에 적절한 언어로 반응해야 한다. 교사가 영유아와 질문하고 언어적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영유아 사고의 질적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영유아의 언어 발달 및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확산적 질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측하기】결과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

- ⇒ “여기에 노란색 크레파스를 칠하면 어떤 색으로 변할까?”
- ⇒ “이곳에 구멍을 내어 보면 어떻게 될까?”

【비교하기】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질문

- ⇒ “개와 고양이는 어떤 점이 다르지?”
- ⇒ “트럭과 버스는 어떤 점이 비슷하지?”

【문제해결하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하게 하는 질문

- ⇒ “병아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자, 이 상자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 ⇒ “밀어서 넘어져 울고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울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평가하기】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해보도록 하는 질문

- ⇒ “병아리 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 했는데, 어떤 방법이 만들기 가장 쉬운지 볼까?”
- ⇒ “물을 먼저 마시려고 친구를 밀면서 뛰어가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상상하기】상상력을 풍요롭게 해주는 질문

- ⇒ “공룡 뱃속에 들어 가보면 어떨 것 같니?”
- ⇒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계속 눈이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지식 적용하기】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 ⇒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있지. 검은 색 국수 같은 거. 그게 뭘까?”
- ⇒ “양은 무엇을 먹고 살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한 염소하고 똑같은 거 먹고 사는데.”

【일반화하기】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유사한 상황에 일반화하는 질문

- ⇒ “독수리, 참새, 까치 모두 다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오리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 ⇒ “빨대로 주스를 빨아 먹어 본 적 있지. 나비의 입이 빨대처럼 생겼는데, 나비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변형하기】사물의 성질 변화에 관한 질문

- ⇒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 ⇒ “달걀을 깨 보니까 물 같지. 그런데 이것을 불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유추하기】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유추하게 하는 질문

- ⇒ “오랜 시간이 지난 음식은 왜 먹으면 안 될까?”

⇒ “우리 교실의 금붕어 친구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생하기】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하는 질문

- ⇒ “백화점에 가 본 적 있어요? 백화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 ⇒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있어요? 그 때 기분이 어땠어요?”

【대안 제시하기】다른 방법이나 관점을 찾아보게 하는 질문

- ⇒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 타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 ⇒ “높은 나무 위에 감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따 먹을 수 있을까?”

영아와의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원리

언어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으로 영아의 몸짓이나 표정 또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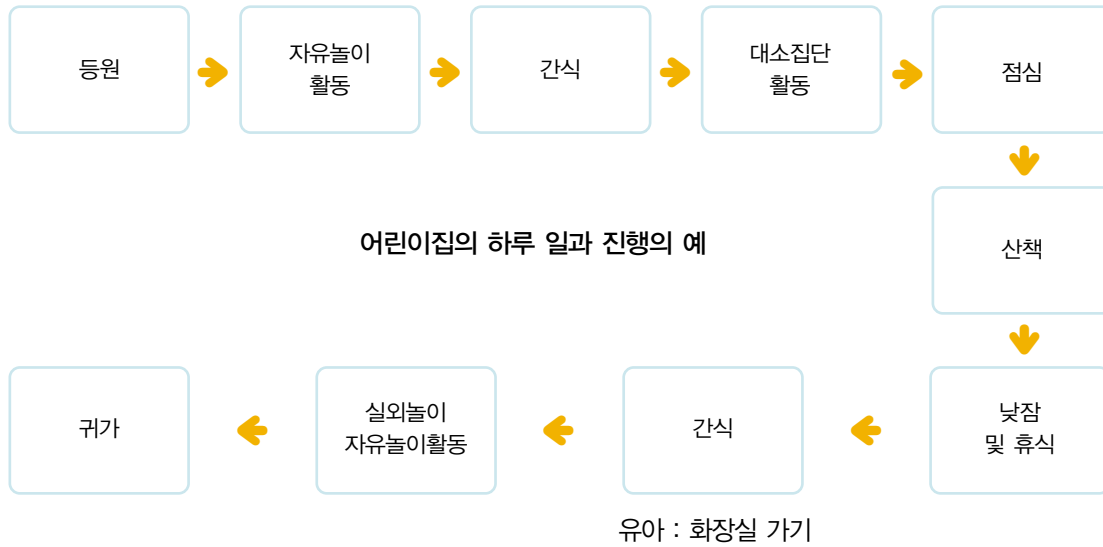
- 되도록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만 말한다.
-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명확한 단어와 단순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한다.
- 영아의 부정확한 말을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말해 줌으로써 명료화한다.
즉, 단순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말해준다.
- 영아의 말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주변상황을 관찰한다.
- 비판이나 간섭 등의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 영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추어 이야기한다.

3) 하루일과에서의 상호작용 원리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종일반으로 운영된다.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은 어머니가 일터로 출근하는 것과 동시에 등원하여 부모가 퇴근해서 귀가할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또래 영유아들과 교사와 함께 계획된 일과 속에서 상호작용한다.

교사는 이 때 영유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평등감을 갖게 하며, 놀이를 활성화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등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하루일과에는 등원, 자유놀이활동, 간식, 대·소집단활동, 점심, 산책, 낮잠과 휴식, 실외놀이, 귀가 등의 상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등원에서 귀가까지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교사의 상호작용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히, 영아교사에게 지침이 되는 상호작용 원리 또한 각 일과 마다 별도로 소개한다.

영아 : 기저귀 갈기



- 영유아들이 등원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배치하고, 영유아 개별적 상황에 맞도록 배려하여 준비를 한다.

영 아

나이가 어린 영아일수록 부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고통이 더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들은 부모와 헤어질 때, 절박한 고통의 표현으로 심하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이 영향이 지속되어 식사를 거부하고 배변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사는 영아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인내심을 갖고 영아를 위로하며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부모가 영아와 헤어질 때 분명하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리고 가도록 한다. 부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였던 물건이나 가족사진을 교실에 놓아두는 것도 영아를 안정시키는 한 방법이 된다.

등원 또는 귀가시 영아의 태도로 부모가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사는 등원과 귀가도 중요한 일과의 하나로 인식해야만 한다.

(2) 자유놀이 활동



↳ 역할영역에서 병원놀이를 하고 있어요

-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영유아의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모두에 적절하게 상호작용한다.
- 영유아 개개인의 눈높이와 발달 수준에 맞게 되도록이면 일대일로 상호작용을 한다.
- 실제 놀이 상황에서 때때로 교사는 영유아가 모방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한다.
-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심리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주변 환경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1) 등원



↳ 즐겁고, 따뜻한 어린이집에 왔어요

-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유아와 부모를 대하며 영유아가 부모, 교사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돕는다.
- 등원 시 교사는 부모와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영유아를 몇 분 동안 안아 주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편안하게 부모와 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교사는 부모와 전날의 건강상태, 심적 상태, 수유나 식사 여부 등에 대해 묻고 부모가 일일 보고서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영 아

영아는 익숙하지 않은 놀잇감의 경우 익숙해질 때까지 탐색한 후 갖고 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맞게 놀잇감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넉넉한 시간을 주고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아가 선택한 놀잇감에 대해서 따뜻한 태도로 인정해 주고, 언어적으로도 격려한다. 영아가 놀이할 때 구체적으로 격려해주고, 영아의 놀이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3) 간식 및 점심



⇨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 교사는 음식의 배식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활동이 영유아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 영유아가 식사 전 손 씻기, 식사 후 양치질하기까지 바른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개별 아동에게 관심을 갖는다.
- 음식을 먹을 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때때로 조용한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다.
- 영유아의 개별적인 음식선호와 특성을 인정한다.
- 간식 및 점심시간은 영유아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한다.
- 올바른 식사예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영 아

교사는 수유할 때 영아를 안아서 영아와 눈을 맞추고 미소 지으며 말을 한다. 처음에는 영아의 욕구에 따라 수유 횟수를 조절하나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수유하도록 한다.

영아는 스스로 밥 먹기, 손 씻기 등 자조행동에 있어서 미숙하므로 영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교사는 기꺼이 돌보아 주어야 한다. 식사 중에도 영아를 살펴보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이를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영아는 식사할 때 가끔 의도적으로 음식을 떨어뜨려 보거나 서로 섞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영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허용한다.

(4) 대 · 소집단 활동



⇨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로봇을 설명해요

- 교사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활동이나 영유아가 흥미로워하는 주제를 전체 또는 소집단으로 진행한다.
- 대소집단활동시 되도록 모든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유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한다.
- 이 시간에 계획되어 있는 활동을 미리 간단하게 영유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영 아

영아들에게는 되도록 집단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는 목적으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집단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영아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로 바른 자세를 강요하거나 이탈을 제지하지 않는다.

(5) 산책



⇨ 산책을 통해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해요

- 산책 장소에 대하여 사전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이 때 산책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 산책은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곳부터 실시한다.
- 계절과 시간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한다.
- 산책길에서 마주친 자연환경에 대해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상호작용하여 산책에 따르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영 아

이동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갖기 어렵다면 보육시설의 놀이터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바깥 놀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아는 바깥놀이를 통해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접할 뿐만 아니라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영아가 산책 중 자연 탐색에 몰입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탐색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6) 낮잠 및 휴식



☞ 선생님의 토닥거림이 나를 재워요

-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기분이 차분해지고 흥분이 가라앉게 배려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수면습관에 맞게 최대한 배려한다.
- 영유아가 일과 중 상한 감정이 있다면 낮잠시간에 교사가 개별적으로 위로해 주는 상호작용을 한다.
- 잠들 때까지 조용한 음악이나 동화를 들려준다.
- 다른 친구의 잠을 방해하는 영유아는 야단치기보다 장난하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둔다.

영 아

교사는 영아의 생리적 주기를 고려하여 반드시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우유병을 물어야 잠이 드는 영아의 경우 잠든 즉시 빼내 주고, 빼낼 때 놀란다면 영아를 안아주어 스킨십으로 잠이 들게 한다. 가정에서도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모와 상담한다.

(7)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가기



☞ 기저귀 갈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 교사는 영아의 대소변 리듬을 파악하여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한다.
- 영아의 경우 기저귀 간 횟수와 대변의 상태를 기록하여 부모에게 알려준다.
- 18개월 정도의 영아부터 배변훈련은 가능하나 교사는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
- 영유아의 개인적 배변시간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이시간에는 영유아에게 화장실에 가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 배변시 영유아의 도움 요구에 교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영유아 스스로 배변 후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 아

배변훈련은 영아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심리적 과정임을 교사는 인식하여야 한다. 배변훈련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영아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되며 오히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격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영아가 성공적으로 대소변 가리기를 할 때 칭찬하는 것이 영아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8) 실외놀이



☞ 매일매일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 교사가 먼저 실외활동에 적극적이며 즐거운 태도를 보인다.
-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실외놀이시 규칙적인 준비 운동을 시행하여 급작스러운 활동으로 영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 실외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한다.
- 실외놀이 중에도 또래 간에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영 아
<p>영아는 성인 의존적이므로 바깥놀이에서도 교사 주변에는 늘 영아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자칫하면 교사는 함께 있는 영아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아는 위험상황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영아가 없도록 주의한다.</p>

(9) 귀가



⇨ 내일 또 우리 어린이집에 올거예요

- 하루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하루의 생활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즉, 가장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다음날 계획된 일을 미리 이야기하여 다음날을 기대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남아있는 친구들과 교사에게 서로 잘 지내고 다음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다정한 인사를 나누게 한다.
- 자신의 소지품은 되도록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하고 잊지 않도록 한다.
- 부모에게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부모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이야기한다.

영 아
<p>교사는 영아의 하루일과와 수면, 수유, 배변상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일일보고서에 기입하여 부모가 알도록 한다.</p>